목회자 칼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상

임영수 목사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귀족인 존 코트가 찾아와 "제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1개월이면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6개월?"

"글쎄요." "그러면 1년이면 되겠습니까?"

다빈치는 잠시 침묵한 후 "그림의 완성 기간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나 걸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불후의 명작 모나리자입니다.

지난 4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용해 오던 주보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보의 형태가 나오기까지 미술에 조예가 있으신 몇 분의 집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여 여러 번 주보의 형태와 표지 컷을 구상하다가 지금의 주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작은 일 같지만 목사인 나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주보 표지 컷으로 그려진 몇 장의 견본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탓할 것 없는 좋은 것이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모형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결국 집사님들의 반복적인 수고의 결실로 현재의 주보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주보는 그 전 과정의 것들에 비하면 색상도 없고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형태와 컷이 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허락된 임기 동안 매해마다 한 폭의 교회 그림을 그려가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해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구해가면서 그 해에 그려야 할 교회상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려 가는 교회상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모방해서 모자이크 해가지 않고 허세와 경쟁심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을 한 해 한 해 정직하게 그려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려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상을 그려 가는 데는 어떤 주제와 원칙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그 주제와 원칙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친교의 교회 공동체
섬김의 교회 공동체 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교회상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는 인간에 의해 생겨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친교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며,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실현해 가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자기 갱신을 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역사가 불과 십 년이 조금 넘습니다. 십 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 가는 교회가 되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오고 있습니다. (2면으로)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9호 (격월간)
발행일 1999년 7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 · 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상 / 임영수 목사
2
우리네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 김미자 권사
3
자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 정광희 집사
4~6
특집 / 청년부
6
이 분도 주님의교회
7
교회소식
교우동정
신앙 클리닉
유머 한마디 / 형광등
의학상식 / 김재중 집사
8
법률상식 / 임병일 집사
무용 이야기 / 김두련 집사
시 / 김현희 집사

시론

우리네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김미자 권사(53구역)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롬 12:4)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교회란 어떠한 신앙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몸에 눈 · 코 · 입 등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손 · 발 · 눈 · 귀가 다르듯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제각기 다르고 각각 특성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멸시할 권리도 없습니다. 제각기 자기의 일만 성실히 하면 몸이 건전하게 활동합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라도 교만하지 않고 누구도 비굴해지지 않고 모두 겸손하고 기쁘게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그의 몸이신 교회를 온 정성과 힘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우리 주님과 구원을 발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 길을 걷게 된 곳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불변하는 지혜를 얻게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육체의 삶 7, 80년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미 영생에 이어진 삶을 살게 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공동체 중 가장 고귀한 것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비참에서 건져낼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인간 역사상 모든 발전과 개혁은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하게 활동하며 개혁되고 발전된 곳은 교회의 덕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교회가 세워진 지 11주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가꾸고, 잘 섬겨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늘 전하는 아름답고 선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1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형식을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됩니다. 형식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시에 헌금을 무명으로 개인별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교회만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는 이름을 밝히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 교회에서보다 더 성의 있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할 때 이름을 밝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헌금하는 교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형식 이전에 교인들의 신앙 내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형식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건강한 신앙 내용을 가진 교회로 형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야 하겠습니다.

기고

자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정광희 집사(16구역)

십대들의 쪽지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편지 상담을 하게 된 지 벌써 10여 년.

그들의 편지를 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아 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절망할 때, 몇 마디의 따뜻한 표현이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확인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어준다면….

오늘 우리의 10대들은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채 무엇을 향해 가는지조차 모르고 방황합니다. 예전 빈곤의 시절처럼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하는 방황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정신적 방황이기에 그들에게는 기대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어른이 미처 짐작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큰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부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픔을 숨긴 모습일 때가 많아 부모들은 정작 그 아픔의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이 아픔의 실체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부모와 그들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그들은 그 방황의 길에서 벗어나 꿈과 소망의 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10대들의 편지를 보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과 실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은 여러 가지 방어와 위장의 옷을 두껍게 입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10대들은 그들 앞의 현실에 알몸으로 부딪히며 저항하고 상처의 화살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피 흘리며 고통 받습니다. 사실 인간 문제의 근원은 외부의 요인에 있다기보다 내부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 이미 형성된 내면의 그 무엇이 그토록 소망하는 좋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 역할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왜곡된 자아를 고쳐 가는 겸손의 자세에서 비롯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한 사람의 인격체인 자녀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맡겨주신 자녀는 때가 되면 자녀 자신이 스스로 살아야 하는 고유한 삶의 목적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와는 다른 생을 사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안전함의 바탕 위에서 성장의 과정마다 꼭 필요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과 자유로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 역할에 대해 얘기하면 예외 없이 금방 주눅 들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 그렇습니다!**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인간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십 여년 10대들과 편지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절실한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에는 별문제 없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하고도 차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무시하거나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행여 내 것이라고 착각하셨다면 곧 회개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진실로 인정하십시오. 특별히 자녀의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십시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귀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되어서 공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단코 자녀 앞에서 포기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소망을 가질 때 그 자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상황의 좌절이라도 딛고 일어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10대 청소년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들이 믿어주는 만큼 그들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믿으십시오. 그런데 왠지 엄두가 안 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그 분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분께서 약속하신 지혜(약 1:5)를 구하십시오.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집 / 청년부

왜 그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윤주 자매(청년 2부)

제 신앙은 항상 부끄러울 정도로 보잘 것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제 자신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올해로 15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아직도 처음 나온 교인처럼 낯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집안에 크리스찬은 거의 없으며, 저의 외가는 불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외할머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고 저의 외삼촌 중 한 분은 스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때마다 절에 가서 제사 지내고 유명한 절이나 사찰을 찾아보기도 하고,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는 나의 종교는 불교라고, 당연히 나는 불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으며, 그런 분위기에 참 익숙하게 실았습니다. 밤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면, 저 아래에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이 온통 동네를 수놓은 것이 보였고, 그때만 해도 그 십자가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8살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이 행하고도 이유를 모르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전 아직도 제가 왜 교회를 나올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는지, 돌이킬 때 마다 알 수 없고 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한 사람도 없고 교회에 다니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달해서 집밖에 나가거나 단체 생활에 참여하길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도리어 수줍고 소극적이어서 누가 시키기 전에 일부러 사람들 있는 곳을 찾을 성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84년인가 85년 언제부턴가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이런 분들의 존재가 제게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란 단어는 제게 참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집 근처의 유치원 원장님이 기독교인이셨던 관계로 간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먹고, 동요를 부르면 한 곡은 으레 복음성가의 동요를 부르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앞이 깜깜할 때 기도, 기도했나요'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었던 일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겐 기독교가 낯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로 순탄하게 신앙이 성장되어 아직까지 잘 하고 있다면 참 좋겠으나, 조금 자란 이후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에 나올 형편이 못되었고, 저의 가정을 보나 주위 환경을 보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기 시작했고, 어차피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교회에 나갈 정도의 믿음이 성숙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형편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차라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주일을 지킨다는 말도 잘 모르면서도 전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려고 꽤나 노력했고,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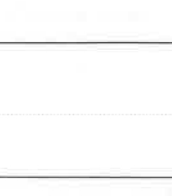
모태 신앙이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인 분, 그런 분위기에서 사신 분들은 이런 저의 처지를 이해하시지 못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와 교인에 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참으로 갈등하고 그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미덕(virtue)이고, 집에 돌아오면 그 미덕이 한순간에 악덕(vice)이 되어 버리는…. 이 두 가지 상충된 가치로 저는 혼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교인으로서 그런 주님의 사업에 마음으로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바라 보게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 교인…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분이라면 제 말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신실하지 못한 크리스찬이고 집안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말라는 교회에 나가는 나쁜 딸이었습니다(그리고 고백하건대 아직도 그렇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시절엔 거짓말 하고 속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 자신이 무척 모순되게 여겨졌습니다. 제 눈에는 집안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어려움 없이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과는 거리가 먼 제 삶에 많이 낙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대로 불교 신자로 살았으면(어쩌면 그게 더 제겐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는지를 생각하면 실로 앞이 깜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 다님으로 해서 제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제 주위 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와 제 주인 되신 그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또한, 8살 꼬마인 제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교회에 다니고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신앙을 가져온 것이 정말 사람의 일인지 묻는다면,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정말 갑자기인지 아니면 전부터 계획된 일인지 묻는다면, 전 이 질문을 세상의 관점에서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절 교회에 부르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제 주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저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알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저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특집 / 청년부



2000년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오영석 형제(청년 1부)

밀레니엄, 이 단어는 이제 꽤 친숙한 단어이다. 얼마 전 출판된 모 회사의 '굿모닝 밀레니엄'이라는 책은 이러한 세기적 변화의 첫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예수는 민중 속에서 추대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로부터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특이한 인물이며 역사의 변혁가라고 소개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새로운 세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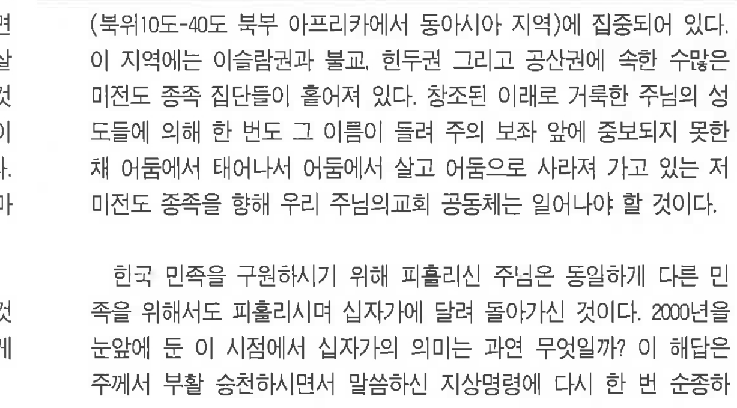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8-19)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유언의 말씀을 이른바 '지상명령'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사람의 편의대로 잘못 이해되어 가르쳐 왔다. 아마 대부분의 해석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화하라는 의미로 말이다. 즉 모두 전도의 틀 속에서 소화시키려고 하였다. 가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치며 배우지만 정작 그 대상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해석해 왔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텍스트를 볼 때,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은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대상에 대해 대충 주변 이웃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 해석되어 왔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대상이 '모든 족속'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문장구조와 논리상 "모든 사람으로"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성경은 지상명령(마28:19)에서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 대해 빈번히 언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12:1-3 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8-11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족속의 말로 복음이 증거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족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그 외 여러 말씀(마24:14, 눅 24:47, 행 1:8)에서 충분히 이것을 보증해 주고 있다.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자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 민족 방언을 통해 모든 족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토록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동일하게 복음전할 대상에 대해 집요하고도 의도적으로 모든 족속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구촌 복음화의 접근단위(unit)가 개인 혹은 국가가 아니라 종족(ethnic group)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종족 혹은 족속에 대한 선교를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족속, 종족 혹은 민족은 바로 타문화권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즉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수많은 종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지구촌에서 언어인종학적으로 분류할 때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만여 종족은 복음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거나 이들 가운데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자신들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말한다. 미전도 종족은 주로 10/40창 (북위10도-40도 북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이슬람권과 불교, 힌두권 그리고 공산권에 속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 집단들이 흩어져 있다. 창조된 이래로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에 의해 한 번도 그 이름이 들려 주의 보좌 앞에 중보되지 못한 채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에서 살고 어둠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저 미전도 종족을 향해 우리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흘리신 주님은 동일하게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피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2000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해답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다시 한 번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에 철저히 외면 당해 온 저 10/40창 미전도 종족을 향해 우리 주님의교회는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기말에 그 분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시며 던지시는 진정한 사링의 메시지다. 그렇다. 이 변화하는 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 분이 진정 우리 구속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정직한 질문은 우리가 추구할 참 질문이요 명제인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4)

특집 / 청년부

물고기 남자

조재연 자매(청년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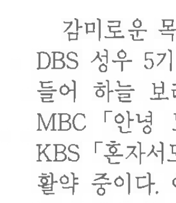
저는 얼마 전에 〈물고기 남자〉라는 연극을 보고 느낀 것을 적어 보려 합니다. 이 연극은 양식장을 배경으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남자의 주인공은 '물고기는 저절로 자란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양식장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곧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양식장은 망합니다. 이때 브로커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양식장을 되사려고 나타납니다. 브로커는 헐값에 산 양식장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어차피 양식장을 사게 될 사람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망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이익만 채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브로커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무장한 인물입니다. 자본주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 브로커라는 인물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인물일지 모릅니다. 브로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횡포는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변하고, 이러한 폭력은 사회 속에 만연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IMF 역시 무관심의 폭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눈앞의 이익,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부정 부패를 일삼게 했고, 그 결과로 IMF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예로 환경오염도 이러한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만 보고 몰래 버린 폐유와 쓰레기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오염시켰고, 결국 쓰레기를 버린 본인들조차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배경인 바다는 오염되어 적조 현상으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죽은 사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적조 현상으로 망한 양식장을 되사려는 이유를 안 주인공은 갈등하게 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남에게 똑같이 입히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때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 나고, 주인공의 동업자는 사람을 건져 옵니다. 건져 온 남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행복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인물입니다. 남자를 통해 주인공은 깨달아 갑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 온 인생…. 그런데 이 남자는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남자가 그린 '물고기 남자'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반은 남자, 반은 물고기인 이상한 그림. 이 '물고기 남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고 현실만이 남은 세상에 길들여진 채, 순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상'이란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 이 연극은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이상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남자를 만나고 이 그림을 접하기 전까지 주인공의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온 인생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편안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었고, 그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통해 반성해 보니 자신의 인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브로커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화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나 남자처럼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동이 당장 나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이나 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 갑니다. 이 연극은 우리의 이런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자본주의에 오염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남자를 통해 변화하는 주인공처럼 이 연극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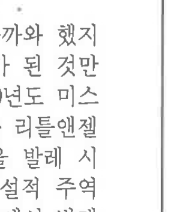
이 분도 주님의교회



아카데미 여우를 그 손 안에

손정아 집사(47구역)

감미로운 목소리와 미모를 겸비한 손정아 집사는 1970년 DBS 성우 5기 공채로 데뷔한 후 80년까지 CBS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장군멍군」「열망」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MBC 「안녕 노디」(노디 역), SBS 「바나바나」(모모 역), KBS 「혼자서도 잘해요」(꿀꿀이 역) 등 세 방송국에서 맹활약 중이다. 어린이들의 우상일 뿐 아니라 영화 더빙에서도 아카데미 여우상에 빛나는 역은 모두 손 집사의 몫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류스, 「터미네이터」 · 「미녀와 야수」의 린다 해밀턴, 「카피캣」 · 「에이리언」의 시고니 위버,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 「미저리」의 캐시 베이츠, 「델마와 루이스」 · 「의뢰인」의 수잔 서랜든 등 그외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중견 성우이다. 남편 양극영 집사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바쁜 생활 중에도 주일이면 아들 재열, 딸 혜라와 함께 2부 성가대에서 봉사 중이며, 딸 양혜라 양은 주일 저녁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주님의 사절, 한국미의 사절

한나나 자매

"진과 0.5점 차이로 선이 됐다고 주위에선 안타까와 했지만 저는 모든 교인들의 기도 덕분에 미스코리아가 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미스코리아 선 한나나 자매의 회상이다. 한나나 자매는 리틀엔젤스 단원으로 합창은 물론 발레도 시작했으며 서울 발레 시어터 김인희 단장을 존경한다. 로열 발레단의 전설적 주역 마고트 폰테인을 꿈꾸며 선화여중 졸업 후 보스턴에서 발레 공부를 했으나, 무릎 수술로 도중에 포기하고 현재는 미시간 주립대에 재학중이다. 71구역 한상곤 · 윤신옥 집사의 무남독녀이며, 주위분들의 추천으로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미를 과시했다.

꽃다운 나이 1979년생.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영화감상, 수영, 스키가 취미이며 부모님과 함께 2부 성가대에서 봉사 중이다. 장래희망은 연기자인데, 요즘 매일 3개 방송국에 초대받고 출연하고 있으니 적성에 맞고 원했던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미인이 있으니 바라보는 기쁨도 있으려니와 또한 주님의교회의 자랑이기도 하다.

신앙 클리닉

Q : 인간은 DNA 구조를 지닌 유기체로서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질병, 정신적 고통, 열등감 등)도 이런 맥락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통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내에 대를 이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지요?

A :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그 지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운명을 60% 이상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罪)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을 초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다면 사회에서 교통질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자신이며 그 다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그것때문에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러한 운명과 대항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생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극복해가면 더 성숙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촉진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은 그러한 불행까지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불행에 머물지 않고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그러한 것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임영수 목사)

유머 한마디 · 형광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오정이 들더라

간음한 여인이 잡힌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트려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바리새인 : 보시오 예수 선생! 여기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소.
어떻게 처리하리까? 율법을 어기며 당신이 부르짖는 사랑을
베풀어 놓아주리까? 아니면 돌로 쳐죽이리까?

상황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태 수습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적을 깨고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마구 치는 것이었다. 이에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 : 아니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냐?
사람 : 예! 저는 사오정인데요! 이 사람 스데반 아닌가요?

교회소식

■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행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가 다음과 같이 있다.

· 시간 : 6월2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예배실
· 프로그램 : 글로리엘 중창단(소년부) 앵콜공연, 장루 · 권사회 특별찬양,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찬조 출연
영화 상영 - 「이집트 왕자」

교우동정

▶ *결혼*
- 문영길 성도
- 전은영 성도(5구역)
- 최중길 · 정은희B
- 옥정근 · 박형자 집사(49구역) 딸
- 금원경 성도(21구역)

▶ *출산*
- 홍성호 · 노혜숙 성도(40구역) / 득남(승환)
- 조은덕 · 황혜선 성도(69구역) / 득녀(민정)

▶ *소천*
- 권옥희 성도(서동필 집사 모친) / 56구역
- 김경순 권사(김고미 집사 모친) / 27구역
- 김영숙B 집사 모친 / 72구역
- 김완진 성도(이혁기 집사 모친) / 45구역
- 정길미 집사 / 72구역
- 김범규 성도(이금선 협동권사 부군) / 76구역
- 김영식 성도(김경순 집사 부친) / 74구역
- 김덕기 목사 모친 / 22구역

▶ *이사*
- 권승환 · 전선희 집사(5구역) / 송파구 송파2동 한양A 31-1201
- 박형기 · 김경수 집사(5구역) / 송파구 성내동 성안마을 청구A 101-807
- 맹영정 · 방숙자 집사(40구역) / 송파구 잠실본동 227-9 혜성빌라 402호 (422-9994)
- 박재현 · 김영나 집사(44구역) / 송파구 신천동 장미A 21-203 (3431-5855)
- 정동훈 · 박은주 집사(48구역) / 수원시 영통동 황골마을 쌍용A 242-1602 (0331-203-9915)
- 박대길 · 박지원 집사(50구역) /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772-24 현대그린빌 901호
- 김관희 집사(51구역) / 강동구 명일동 강동A 64-505 (441-5723)
- 함준식 · 허경 성도(52구역) / 송파구 삼전동 133-4 삼전빌라 101호
- 김군우 · 박서란 집사(29구역) / 서초구 반포2동 한신A 32-205 (595-2191)

▶ *개업 · 동정*
- 류성호 · 김혜경 B(66구역) / Reebok 스포츠 관련제품
- 정선일 집사 / 연극 「오 마이 gods(우상들)」 출연, 7.15~8.31 대학로 알과 핵 소극장
- 이드보라 / 마약 피해 입은 가족을 위한 소식지 '로뎀' 창간

의학상식

호흡 곤란(1)

김재중 집사
(심장 전문의 · 59구역)

호흡 곤란은 일상 생활을 하는 중에 흔히 느끼는 증상 중의 하나이다. 흔하면서도 또한 호흡 곤란을 느끼면 많은 경우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 증상이다.

호흡 곤란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정상적으로 사람은 매분당 3~4회 정도는 심호흡을 생리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심호흡을 함으로써 폐의 깊숙한 곳에 있는 폐포(허파꽈리)가 위축되어 무기폐가 되는 현상을 막아주게 된다. 이러한 심호흡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50어 차례 이상 하게 되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만일 이를 느낀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호흡 곤란은 이처럼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나타난다. 호흡 곤란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호흡의 횟수가 빨라지거나, 심호흡이 계속 되거나 혹은 호흡할 때에 힘이 들때이다. 심리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흥분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반응은 적을 대할 때의 공격과 방어의 상태가 되므로 호흡의 횟수가 빨라지게 된다. 또 어떤 때에는 지나친 정신적 반응에 의하여 자제할 수 없는 과호흡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호흡이 빨라지면 대개는 호흡을 자각하게 되어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고, 과호흡이 생기면 필요 이상으로 체내의 탄산가스가 저하되어 이로 인하여 호흡은 더 자극되어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과호흡은 심하면 실신을 유발하기도 하여 심각한 신체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인성 과호흡은 유발요인으로 심리적, 정신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시

판단

김현희 집사(2구역)

부족한 것을 더
부족하게 하지 말아라

한 뼘의 믿음으로
그 이상 생각할 수는 없는 것

나무는 갈대라 해도 좋으나
갈대를 나무라 하면 불행하다

재면 잴수록 모자라는 우리들
모두 羊이 된 것으로 뿌듯하다

가슴에 꽉 차 발길질 하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짐 져 주는 것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눈은 그에게만 있는 것
우리들 가슴에조차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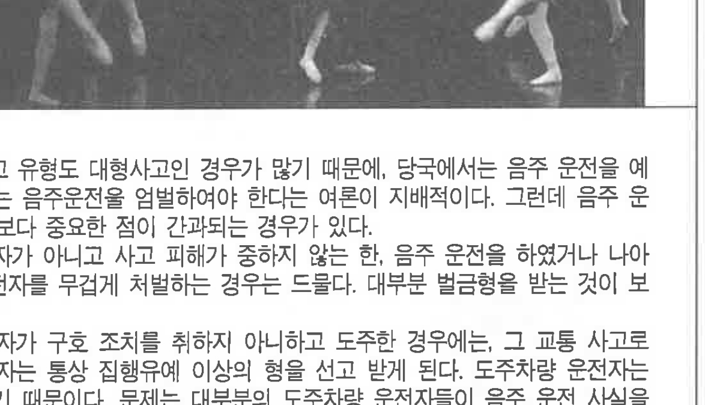
부족한 우리 쓸 믿음 더 빈 손이게 만드는 손
이젠 없어져야 한다

무용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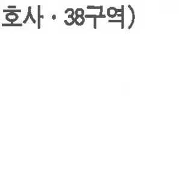
'99 서울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에 부쳐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하는 '99 서울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가 올해 세 번째로 성대히 개막되었다. 매년 푸른 5월 청소년의 달에 펼치는 이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 문화 행사이다. 이 행사의 목적은 세계 청소년들이 춤의 만남을 통해서 국제간의 우의를 다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이번에 참가한 중국 · 이탈리아 · 일본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한국 등 각국의 작품에서는 그 기후와 습관 · 언어는 달라도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민속 춤에서는 다이나미한 발의 동작과 몸짓을 통하여 대륙적인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중국의 '물장구 치는 오리'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치 오리로 연상될 만큼 잘 훈련된 기술과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말 춤에서는 말이 달리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 보임으로써 산이 없고 평지인 말레지아의 지형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우리는 인터넷'이란 작품은 세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란 모체를 통하여 서로 통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인상적인 작품으로 21세기가 국제화 · 정보화 시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의 '색종이 접기'에서는 동작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표현하는 구성의 미를 추구하였고, 이탈리아의 발레에서는 깨끗함과 청순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매해 열리는 이 청소년 무용 축제는 단순한 무용 축제가 아니라 21세기 주역이 될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각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 주리라 믿는다. (김두련 집사 · 70구역)



법률상식



음주 운전 사고

임병일 집사
(변호사 · 38구역)

음주 운전시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 유형도 대형사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도 자주 하는 편이고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음주 운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보다 중요한 점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가 아니고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는 한,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나아가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교통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그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는 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 도주차량 운전자는 법률상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주차량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교통 사고 자체는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커다란 처벌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일단 사고장소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운전자는 음주 운전 사실은 숨길 수 있지만 나중에 도주차량 운전자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연 퇴직하게 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사고로 직원이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주 운전자가 공무원이나 교원 혹은 금융 기관의 직원이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러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형은 직업 선택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직장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본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왕왕 목도한 바가 있다. 음주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경우라도 냉정을 잃지 말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본인이나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